

# 고흥군 드림스타트 전국 지자체 롤모델 됐다

<아동복지사업>

### 저소득층 아동·임산부 등 대상 70여개 맞춤형 사업 정부 평가 2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전국 자치단체 멘토 기관에 선정...60여곳 벤치마킹

고흥군이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드림스타트 사업' 등 아동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정부의 드림스타트 운영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고흥군은 특히 지역 내 연계 기관과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발매된 대응에 나서는 등 맞춤형 아동 복지 서비스 사업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임신부 및 0~12세 아동과 가족에게 사

례관리를 통한 건강·교육·복지·가족 지원 분야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복지사업이다.

◇드림스타트 예산 전국 최대...인재육성 향한 집념=고흥군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09년 고흥읍과 풍양면 2개 읍면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정식 출범했다.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첫발을 땀 고흥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12년 사업 대상지역을 군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군비 5억원을 추가해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에만 관련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개선'과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2회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전국 지자체 멘토로 우뚝=고흥군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국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드림스타트 멘토기관으로 선정돼 최근까지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고흥군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고흥을 방문했다.

또 전국에서 진행되는 드림스타트 관리자 교육 교육, 워크숍 등에서 고흥군의 정책이 우수사례로 다뤄지며 타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다.

◇70여 종의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고흥군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는 358세대 544명이며, 70여 종에 이르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분야 등에 70여 종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검진과 치료

치료, 응급처치교육부터 타블, 음악 줄넘기 등 뉴스포츠, 태권도·합기도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 및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또 미술심리치료와 음악 및 미술학원과 연계한 예능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비롯한 오지마을 거주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12개소 아동센터와 6개소 어린이집 내에 발레, 플룻, 창작무용, 공예, 사물놀이, 웅변, 미술, 방송댄스, 피아노 등 9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 1회 정기 운영중이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외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아 각종 문화체험과 생필품 지원 및 치아보철치료, 수술비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27일 "드림스타트 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지역복지 발전의 초석이며,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상자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군은 정부 드림스타트 운영 평가에서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흥지역 어린이들이 '디딤돌 공부방'에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교육을 받고 있다.



구례군이 최근 개장한 세계 최초 압화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압화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구례군 세계 첫 압화박물관 개관

### 전시 작품·표본·채집기구 등 731점 전시

구례군이 세계 최초로 압화박물관을 개장했다.

구례군은 "세계 처음으로 압화를 주제로 한 한국압화박물관을 국립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지난 23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의압화대전을 개최하고 전국 유일의 압화전시관을 운영해 왔다.

구례군은 특히 그동안 전시 작품과 표본, 채집기구를 비롯한 우리나라 최초의 압화작품 도입기인 1980년대의 양정인 작가 작품 등 731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학술적 고증을 거쳐 지난 5월 26일 1층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했다.

이번에 개관한 한국압화박물관은 국내외 압화 관련 역사문화와 작품 등을

모아 자산으로 등재했으며, 압화 예술인의 문화·학술적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압화박물관 개장을 이끈 정연권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압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조형예술로 꽃의 DNA가 살아있어 수백 년 후에도 후손들이 야생화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다양한 압화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한국압화박물관을 중심으로 볼거리와 체험, 판매 등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 야생화 생태특구와 문화융성자산으로써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 고흥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김의규 의원

고흥군의회가 제7대 하반기 의장에 3선인 김의규(사진) 의원을 선출하는 등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는 "지난 24일 제24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7대 하반기 원구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외장으로는 송우섭 의원이 선출됐으며,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선신 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영현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길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제7대 고흥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



출된 김의규 의원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군의원들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특히 고흥군의회가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제7대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하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자두+살구...곡성군 플럼코트 본격 출하

곡성군이 작년 첫 수확에 성공한 '플럼코트'를 본격 출하한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모아 만든 새로운 과종으로, 살구의 맛과 자두의 향기로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플럼코트를 틈새 소득과수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을 3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묘목대,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축곡면에서 플럼코트를 재배하고 있는 유영열씨는 "플럼코트는 몸에 좋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



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가림 재배로 당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ikum@

## 보성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본격화

보성·별교읍 인력 13명 배치

보성군이 지역민의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읍과 별교읍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 및 변경하고, 사회복지 인력 13명을 재배치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신설된 맞춤형복지계는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신청·접수 처리 등 기존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주민복지계와는 달리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주민체감형 업무를 맡게 된다.

보성군은 지난 3월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복지이장 순회교육을

통한 복지이장의 역할을 알리는 한편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읍면동 허브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해왔다.

군은 특히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등 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찾아오는 복지대상자의 민원 신청·접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이장과 읍·면 희망드림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사업에 나서고 있다"면서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읍면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화순 도곡, 무인텔, 동업 / 인수 / 투자 하실 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은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 겸)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경매 투자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